



金井議政

제2016-9호

2016년 9월 1일(목)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제245회 임시회 개회안내 (예정)

- 기 간 : 2016. 9. 2(금) ~ 9. 8(목) ▷ 7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의원전원
- 안 건 : 업무계획 보고 및 상임위 안건 심사

의정 일지

일 시	내 용	비고
8/1(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8/8(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8/15(월) 08:30	·제71주년 광복절 대형태극기 게양식	의원
8/16(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8/17(수) 15:00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의장
8/17(수) 18:30	·2016년 제1회 연꽃 달빛 음악회	의장
8/18(목) 10:00	·하절기 새마을운동 수영강 상류 환경 정비	의장
8/19(금) 08:30	·의원 · 직원 워크숍	의원
8/20(토) 17:30	·부산금정청년회의소 창립37주년 기념식	의장
8/22(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8/23(화) 14:30	·을지연습 훈련장 격려 방문	의원
8/23(화) 17:00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	의장
8/27(토) 09:00	·어린이 · 청소년의회 본회의	의원
8/29(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8/31(수) 19:00	·현의 어울림	의장

주요 의정 활동

■ 2016년 의원·직원 워크숍 개최

▷ 금정구 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8월 19일 제7대

후반기를 맞아 자매결연지인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제7대 후반기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의원·직원 1일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산청군의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 이승화 외 9명의 의원들과 상견례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산청군 우수시책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래프팅을 통해 7대 후반기 화합과 소통 체험을 하고 제2차 정례회를 위한 총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 7대 후반기 의정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 2016년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 홍완표 의장을 비롯한 금정구의원회는 지난 8월 23일 을지연습 중인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및 금정소방서를 방문하여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이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전쟁 시 혼란스러운 상황의 대처를 연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놓은 '총무계획'을 재정해 놓았다.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는 실전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어 매년 '을지연습'을 통해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평소에도 긴급상황에 대비해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금정구의회는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매년 그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기획총무위원회 러시아 국외연수 후기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홍완표 의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대학교, 러시아 국립도서관,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러시아 문학연구소, 이즈마일로보 벼룩시장 등을 방문하였다. (※연수 의원 : 홍완표 의장, 정미영 위원장, 김경운 의원, 박종성 의원, 하은미 의원, 오히주 의원)

도서관을 통해 들여다 본 러시아

-국립도서관 & 과학아카데미도서관

금정구에 소재한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환학생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를 찾았다. 한국어 전공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도 좋았지만, 1학년에서 5학년에 이르는 한국어 전공 학생들과의 만남도 무척 인상이 깊었다. 미리 준비해간 부산광역시와 금정구를 소개하는 한국어 영상자료를 보여주고는, 이 내용과 한국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자유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시각의

질문에 학창 시절의 전공 실력을 담은 의원들의 현장감 넘치는 답변이 오갔다.

모스크바 러시아국립도서관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오래되고 묵직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에 우선 압도되었다. 음악만 걸들이면 카페라고 해도 믿을 만하게 앤틱하고 초록빛이 고운 화분까지 장식된 책걸상들이 여유롭게 자리하고 있는 열람실을 보고 있노라니 부러움이 절로 났다. 도서관이 지어진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는, 지금은 구식인 카드 목록과 현대식 디지털 목록으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과학아카데미도서관, 1714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외양 변천사와 사서들의 활동상을 이용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도서관 복도를 역사자료관으로 꾸미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 국회도서관으로부터 'Window to Kore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에 기증을 받았다는 서적들도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이들 공공도서관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우호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터전이 되면 좋겠다.

이즈마일로보 벼룩시장

-금정구의 프리마켓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근 금정구의 문화예술의 한 트렌드는 악세사리와 수공예품을 중심으로 하는 프리마켓(벼룩시장)의 활성화와 초보적이지만 각 동, 혹은 아파트 별로 주최하는 프리마켓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초기인 데다가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체계적이고 주제를 갖추고 스토리가 있는 소규모 시장으로의 정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 온천천 부산대역에서 수년간 개최된 '아마존' 주최의 예술 프리마켓과 장전동 일대에서 매달 열리고 있는 'STREET21'과 같은 프리마켓은 수많은 셀러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새로운 질적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이즈마일로보 벼룩시장의 특징은 첫째는 상품의 다양성, 둘째는 시장의 규모화이다. 셋째는 시장의 곳곳에 음식점들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 놓은 점, 넷째는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즈마일로보시장과 같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부스나, 파라솔형 매대를 지원하고,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먹거리 매장을 배치하여, 시장을 둘러보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휴식과 함께 식도락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의 개장 시간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셀러들의 매상을 적절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정구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젊은 예술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한 예술작품 판매활동은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프리마켓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 지하철역 탐방

-벤치마킹은 복제나 모방이 아니다

러시아 지하철 하면, 맨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엄청난 각도로 만들어진 기나긴 에스컬레이터와 아름다운 지하철 역사이다.

두 번째는 지하철 역사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정말 달랐다.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말은 보통 왕궁을 봤을때 사용 할 법한 어휘인지 모르겠지만, 왕궁 내부 못지않게 치장되어져 있었다. 하얀 타일로 덮여져 있는 벽에는 지하철이 만들어질 당시의 소비에트 체제가 이루어낸 결실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노동자, 농민, 군인들을 표현한 그림과 모자이크들이 있었고, 기둥 사이 사이에는 용맹한 군인들이 비장한 표정을 담은 조각상들이 즐비했다. 왜 모스크바 지하철역을 보고 박물관 같대라고 말하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 했었지만, ‘일상생활의 관광상품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적합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관광상품 발전 방식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벤치마킹의 의미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 이 벤치마킹이다. 그러나 복제나 모방과는 다른 개념이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선도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해 자사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개념’ 이라 한다. ‘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사례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단순한 모방에만 급급하는 듯하다.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거나 관광지를 발굴해 내는 것만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발전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상품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관광상품화 시킨다고 하는 의미 또한 현대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랜드마크이자 관광상품의 개발일 것이다.

금정구에도 문화예술자산 풍부

-진정한 문화예술교육특구 위해 함께 노력

러시아는 수많은 문화예술 자산 및 교육시설을 이용해 매해 수많은 관광객과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특구로서 금정구도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많은 우수 교육기관과 많은 문화예술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게 된다.

러시아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있는 현지 학생들과 러시아 및 음악을 공부하러 한국에서 유학 와 있는 한국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았다. 금정구에는 특히 이런 유학생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유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기초 한국어 교육, 숙소를 구하고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정착 서비스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공부 중에 지역 내 기업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 유학을 하고 귀국하는 부산외대 학생들에게도 지역 내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들이 배운 러시아 언어 및 지식들이 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모스크바의 지하철 역사 하나하나에서도 예술적 깊이가 느껴졌다. 각 역사 자체가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그 지역에 부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상징물과 조각, 벽화, 장식물 등을 기획하여 건설함으로써 지하철 역사 자체가 관광상품이 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 금정구에도 금정산, 범어사 등 멋진 자연과 유산들이 있고, 요산 김정한 선생의 생가와 문학관도

있다. 이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기획하여, 금정구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 주민들과 금정구청, 구의회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특구 금정구’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